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7호 (2002 가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강패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

- 한국식 오리엔탈리즘 -

박 노 자

지금도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한국학을 공부한 한 고려인(러시아 한인 교포) 여성과 나는 대화가 자주 떠오른다. 한국의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석사를 마친 그 여성은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이 계속 나오는데도 학위를 한국에서 따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한국학을 하려면 중주국이자 당신의 고국인 한국에서 계속하는 게 순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학생의 대답은 의외로 공격적이었다.

“나처럼 ‘고려인’ 딱지를 달고 여기에서 살아보셨어요? 식당을 가도, 미장원을 가도 내 외국식 발음을 듣고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온 교포냐?’는 것이죠. ‘고려인’이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반응이 뭘지 아세요? ‘아이고, 거기에서는 어렵지? 사는 게 어려워서 왔구먼.’ 심중팔구는 그런 식이에요. 국어의 조사체계를 연구하러 왔다고 하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들 실실 웃어 보이죠. 그들은 말로는 우리를 같은 민족, 같은 동포라고 부르지만, 각자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같은 인권을 가진 같은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불쌍히 여겨 동냥해야 할 하층민들이죠. 물론 러시아로 귀국해서 공부하면 인종차별을 일삼는 모스크바 경찰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당하고 가끔 모욕도 당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강패적인 차별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차별보다 덜 무서워요!”

세계 자본주의에 보편적인 경제적 차별을 설명해 가며 가지말고 있으라고 설득했지만, 끝내 그 여성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그 여성이나 내가 대화를 나누어본,

한국에 체류 중인 대다수 고려인과 조선족을 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우열에 따른 단순한 차별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재러·재중 교포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한국식 오리엔탈리즘' 논리였다.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지역의 주민과 문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들을 이질시·타자화하는 것과, 타율성과 소극성, 자기 구제 능력의 부재 등 무력과 무능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략의 대상이 된 비서구 지역 원주민들을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져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과거에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지만 이미 쇠퇴해서 자신들의 교화와 가르침, 선교 없이는 문명화·근대화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는 것은 침략자의 당연한 본능이다. 구한말에 조선에 체류한 미국과 서구 선교사들의 견문기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고정관념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온다. 미국과 서구인의 교회·병원·기업만이 양반의 가림주구에 시달리고, 아무 가치도 없는 불교와 유교라는 미신에 빠진 '불쌍한 조선 백성'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 그 견문기들의 골자다.

그러면 유학을 중단키로 한 그 고려인 여성과 한국을 깊이 접해본 대다수 고려인과 조선족의 엄청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식 오리엔탈리즘'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 교포의 상황을 직접 접해보지 못한 대다수 일반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접하는, 한국 보수언론이 보여주는 북방지역 교포의 모습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못살고 불쌍한' 주변적인 인간이다. 한국의 각종 단체(교회, 병원, 기업)가 '어려운' 교포들에게 베풀어준 각종 '시혜'(선교와 교육활동, 의료 봉사, 경제 지원)와 '수혜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대한 보도들은 재러·재중 교포 관련 신문·방송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거(항일 독립투쟁 등)가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문명화·현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의료, 우리의 산업'의 현지 확장이라는 것이 모든 북방 교포 관련 보도의 보이지 않는 심층적 의식이다. 한마디로,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우리'와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그들'이 대조된다는 것이다. 100년 전 서구와 조선의 관계를 바로 이런 식으로 설정한 영국의 탐험가 비숍(Bishop) 여사나 캐나다 선교사 게일(Gale) 등 조선 관련 견문기의 저자들이 저승에서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좋은 제자가 많다면 손뼉을 치고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국의 은혜를 입은 '못사는 교포'들이 모국의 너무도 선진화한 오리엔탈리즘을 과연 받아들일까? 100년 전 미국과 서구의 '문명시설'에 많은 조선인이 실제로 교육적·의료적 혜택을 받았듯이, 현재 북방 교포들도 한국의 경제적·종교적 현지 진출로 나름대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과연 밥만으로 사는가?

한국 보수언론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북방 교포에게는 뿌리깊은 문학적·교육적·학술적 전통도 있고, 조선족·고려인이라는 곳곳한 (4면에서 계속)

댄서의 순정

김 영 선

동문회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원고를 청탁 받았다. 그 동안 먼발치에서 소식지와 풍문을 통해 동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은사님의 운명까지도... 일터로 입수 되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귀에 익은 이름들 이태영, 강형철, 곽신환, 배선복, 한재원, 이윤일, 신하령... 등 은사님들, 선후배들이 역·저자로 되어있는 신간들 앞에 서면 마치 그들을 만난 양 반갑다.

학창시절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격동기였다. 소설 『대학별곡』의 내용에 시대의 아픔을 덧붙인다면, 아마 우리 학과의 다큐멘터리였을지 모른다. 난 목마르게 찾던 학문 <만화의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哲人과도 같은 동료들과 9교시(방과후의 인생공부), 여행, 갈증을 풀던 독서, 힘겹던 아르바이트, 심한 결벽증을 치유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 - 서울의 봄과 함께 찾아온 민주화투쟁, 폐쇄한 최루탄, 옥내외 강당에서의 집회를 통해 여러 과의 학형들과 교분. 개인적 정치색의 농도를 떠나 현실참여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런 분위기는 노선에 대한 진위 강론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나도 그런 시비 끝에 다혈질의 속내를 보이는 바람에 그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독재마감과 함께 자유투표에 의해 당선된 학생회. 난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우정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을, 당시 우리집은 사랑방과도 같이 많은 동문들이 묵어 가곤 했다. 아마 그 시절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벅들이 많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너보단 어머니 때문에 온다'던 벅들, 실상 새벽 한 시에 귀가해도 따뜻한 밥을 지어 오시던 분이니까. 그분은 오년 전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상청 앞엔 소수의 철학과 동문들만 불렀다. 오히려 학창시절 내가 결성한 동아리(송불회)에서 그 자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졸업하고 취업전선은 힘겨웠다. 온 힘을 다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서너 번의 기회를 맞았었다. 아마 지방방송국 최종시험 통과했던가 한의과 등록을 하였다면 인생은 달라졌을 터인데... 회상컨대 철학과 동문들 송년회 세 차례. 강의를 하기

위해 들른 태영이(나와 동갑)가 오면 일터의 동료들이 숙부 왔다고 놀리던 일. 작년인가 사라졌던 영주가 불현듯 나타나 그의 부친상에서 동문들을 만난 일. 부산 출장가서 주택은행 차장인 호철이 찾던 일. 자격증 공부를 위해 다니던 성균관대학에서는 곽신환 선배의 명성에 반가웠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젊은 시절 격동적 희노애락을 알려준 철학과 벗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절대고독을 극복하게 해주었던 벗과 술, 예술활동. 벗과 더불어 곡차를 들고 그것 때문에 벗들과 은사님을 얻고 잃었다. 지난날의 과오를 교훈 삼아 다짐하며. 그 시절 결성된 승불회와 독신자들끼리 모여 야외 스케치 여행을 하던 모임이 오늘까지도 소중한 인연을 같이하고 있다. 아마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 이 모임들의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젊음- 아니 피터팬의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知란 無知를 아는 것이라 했던가. 칠 년 전부터 틈틈이 기초부터 공부한 도구과목은 나를 단련하고 무지를 일깨운 道. 중학 중퇴한 장정일의 소원이 동서기라도 하면서 밤새도록 책과 씨름하는 일이라고 했던가. 연간 만 권 가까이 나의 손을 거쳐가는 책들의 향기를 안다면 이 소설가는 아마 나의 직업을 꿈꾸었으리라. 아직 이태영, 조상만, 박호철, 김영주, 민훈기, 이종승 등 동문들이 목소리를 보내준다. 이젠 공·부정적인 兩價감정을(미움 분노 죄악감 우정 그리움) 접을 세월이 된 것 같다. 다시금 그 시절은 쓰라린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추억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철학파가인 '댄서의 순정'은 아직도 살아있다. (54회·성신여대 중앙도서관 사서)

(2면에서 계속)자존심도 만만찮다.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남녀관계나 상하관계, 가족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근대화 실적'을 자부하는 그들이 '우리의' 큰 시혜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외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의 선교사·군인·외교관의 오만과 인종·문화적 차별주의가 식민지 조선과 남한의 많은 지식인에게 반미의식을 불러일으켰듯이, 현재와 같은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은 많은 '수혜자'에게 심한 반한(反韓)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앞에서 이야기한 고려인 여성도 그렇지만, 6년 전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조선족 선원이 끔찍한 선상 반란을 일으킨 일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

북방 교포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근대적 정신, 즉 평등과 인권 의식이다. 경제적 우열과 국적, 심지어 '핏줄'과도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평등한 인권의 소유자로 인식할 줄 알아야만 부득이하게 '수혜자'가 된 사람의 자존심과 인권이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신문사2001)에서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양 승 렬

10년이 넘었지만 강단에 서면서 느끼게 되는 여전한 긴장감은 무엇보다 20대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데서 발생한다.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될 만한 지식의 결핍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이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려는 일반적인 해석학적 성향도 문제지만 너무도 논리적인 나머지 어떤 초논리의 직관이나 통찰도 좀처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해의 교류와 지평의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인문학의 영역에서 어떤 신념이나 판단의 진위나 타당성을 따지는 일은 항상 그러한 인식 활동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인식론적인 자리와 그 한계에 대한 철학적 반추를 요청한다는 점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반추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성 과 논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다룬다고 하자. '거미가 거미줄을 정교하게 짜 나가는 숙련된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생명은 생명체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의 작품인가?' '왜 세상은 온갖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가?'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은 논리적으로는 풀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신 신비적인 영역과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다 풀고 난 뒤에야 어떤 철학적이거나 종교적 실천에 임하겠다면 아마도 평생 아무것도 결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리에 대한 집착은 그 자체가 지적인 질환이다. 일상의 활동에서 논리에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고와 논리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비를 신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솔직하고 자기 반성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초논리의 영역을 자꾸만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은 일종의 억지

요 망상이다. 예를 들어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주장이 그 한 예가 아닌가 한다. '신'을 '인간적인 봄과 말함'의 영역으로 한정하고자 할 때 이미 신은 감추어져 버리고 그 레퍼런스는 빛나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신을 자신 안에 인식론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자신이 이미 신보다도 더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를 보면, 언어 논리의 배후에 있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함'과 '나타냄'의 구별은 그의 전기 철학의 중심적 주제가 된다. 과학적 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주로 '말함'의 영역에 한정된다면, '나타냄'의 영역은 그러한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다 근원적인 '존재'의 신비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제의 의미를 그 검증 방식에서 찾으려 한 그의 입장은, 언어적 진술을 세계의 사실에 한정하고 보다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들은 말로 진술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무엇이라 진술하는 일은 언어로 인한 마술에 빠지거나 다만 유추적일 뿐임을 밝혀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老子가 道에 대하여 그것을 무어라고 말할 때, 이미 그것은 道가 되지 않는다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재'의 신비와 관련하여 '자아'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는 어떠한 사고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하는 자아를 스스로의 반성적인 체험 속에서 대상화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자신이 쓰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이러저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의 내용이나 기능을 가진 자아를 반성적으로 체험하고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그러한 주체에 관하여 무어라고 명명하거나 이러저러하다고 기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하는 자아란 아무리 심화해도 대상화된 자아, 경험된 자아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의 주체로서의 '자아' 그 자체는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다만 체험 속에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

결국 신의 존재 문제도 논리적 분석과 '말함'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타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함축된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논리적인 분석의 철저함이 그 극에 도달하였을 때, 그 정점에서 '존재'의 빛이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분석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로 하여금 그것의 궁극적인 한계점에 이르도록 추궁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논리적 세계의 한계, 곧 그 자신의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넘어서 침묵 속에 드리워진 신비적인 것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56회 · 장신대)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장재덕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 관심 때문에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내가 처했던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로 하여금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의 진로를 바꾸어 놓은 한 만남이 있었다. 그것은 한철하 교수님과과의 만남이었다. 직접 대면해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어색할 것 같아서 교수님이라 부르려고 한다. 그 당시에 교수님은 교무를 담당하시면서 학부과정에서 신학을 위한 예비단계로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교과과정을 만들었으며 철학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분석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분석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교단의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려서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다. 그분의 영향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일반대학 철학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때 교수님은 송실대 철학과와 최명관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전에 목사가 되려 했었다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에 송실대에 강의를 하러 오신 한철하 교수님을 만났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종교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철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 보았다. 교수님은 실제로 대학에서 철학을 하고 석사과정에서 종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서는 나의 고민을 알아 처리하셨는지 신학교에서 가졌던 그 시명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가고 싶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철학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뵈었을 뿐 따로 찾아 뵈지 못하여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송실대에서는 김능근, 안병욱, 최명관, 조요한, 고범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철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신학을 목표로 철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신학을 마치고 철학과에 온 학생들도 많았다. 그런데 신학을 하려다가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을 하러 온 것은 드문 경우였던 것 같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분석철학에 관한 강의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때에 최명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강의 중에서 <기호논리학>과 <분석철학>은 나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분석철학 시간에는 B. Russell의 *On Denoting*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B. Russell이 비판했던 G. Frege와 A. Meinong의 입장은 오히려 지금까지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선생님께서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시면서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두어번 말씀하셨고,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는 고려대를 추천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당시에는 송실대 철학과에는 대학원 과정이 없었다. 선생님들을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려대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연구와 관련하여 지도교수로 모시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분은 박희성 교수님이였다. 이 분은 매우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생각하고 영문학과 교수들이 물으러 올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여 영어책을 읽어 나갈 때 연세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전체 내용을 잘 꿰고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분이였다. 나는 박 선생님과 함께 철학을 실제로 분석적으로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박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 A. N. Whitehead의 *Adventures of Ideas*와 C. I. Lewis의 *An Analysis of Knowledge and Valuation*이 있다. 나는 석사논문에서 「C. I. Lewis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객관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것은 가치문제를 윤리문제와 분리하여 지식론적인 시각으로 봄으로써 객관성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자연주의적인 시도이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 철학과가 그 곳이었다. 그 곳에 몇 년 있는 동안에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 문제」, 「경험적 지식의 정당화 문제」 등 계속해서 C. I. Lewis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공부를 더 하기 위하여 외국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독일을 선택했고 따라서 연구분야를 C. I. Lewis에서 G. Frege로 변경하였다. 의미(meaning)를 지시체(denotation)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Russell과는 달리 Frege의 경우는 뜻(Sinn)과 지시체(Bedeutung)를 구분하였고, 지시체가 없는 뜻의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허구의 의미론적 구조를 밝혀보려 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Konstanz대학 박사과정에 갔다. 그 곳에서 F. Kambartel, J. Mittelstrass, A. Wellmer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 중에서도(10면에서 계속)

程頤 『역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의리



심 의 용

본 논문은 『주역』을 독해하고 주석한 정이의 『易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고전의 텍스트를 독해할 때에는 분명 그것을 독해하는 사람의 이해지평과 문제 의식이 개입한다. 그렇다면 정이가 『주역』을 독해하여 주석했을 때에도 그의 이해지평과 문제 의식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지평과 문제 의식은 곧 그 시대와 사회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전제 하에 북송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시대적 요구가 담긴 주제가 당송 변혁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들, 즉 지식인들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이가 『주역』을 해석하는 데에는 이러한 문제 의식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사대부의 문제는 정치 권력과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정치권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대부의 義理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 목적은 정이의 『역전』을 그 당시 북송 사회의 시대적 분위기의 문제와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정이는 북송 사회의 위기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 정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대부라는 지식으로서 올바른 행위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역』을 독해했다. 그리고 『주역』은 그러한 내용을 제시해 주기에는 매우 좋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즉 음양의 착종으로 이루어진 64괘는 어떤 종류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상징하며 개별적인 각각의 효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조건에 합당한 의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대부들이 어떻게 행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대부들에게 합당한 의리를 따라서 행위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는 매개물로 정이는 『주역』을 독해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이의 『역전』은 사대부들에게 합당한 의리를 제시해주는 실천적인 지침서였다.

이렇게 사대부들에게 합당한 의리를 따라서 실천하도록 강조했던 것은 사대부들이 정치권력의 관료가 되지 않고서도 사회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즉, 우주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천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사대부들은 강력한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군주 또한 천리에 따라서 행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군주에 대한 맹목적

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군주라는 절대 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며 또한 군주의 권력을 확장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군주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근원을 제시하여 군주도 천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그 상황에 합당한 의리를 실천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정치 권력과 관료제도와는 독립된 사대부들, 즉 비판적 지식인의 모델을 만들었다.

정치적인 권위를 천리에 의거한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통합한 것이 정이의 사회 정치적 이론의 핵심이다. 그것은 정치 권력(正統)을 뛰어넘는 권위의 근원(道統)을 주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관료가 되지 않고서도 사대부들의 권력에 대한 비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했다. 이것은 정치와 도덕적인 문제의 통합이었으며 또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근거였다. 여기에는 군주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절대주의를 제한하고 지방의 지주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예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함의가 있었다. (62회·본교 강사)

(8면에서 계속) F. Kambartel교수는 G. Frege의 철학에 특별히 조예가 깊고 Frege 유고집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Kambartel교수의 제자인 G. Gabriel박사를 만나면서 문학언어의 분석과 문학의 의미론적 설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집안 사정으로 서둘러 돌아왔지만 귀국한 다음에는 총신대를 거쳐 호수와 겨울풍경이 Konstanz와 흡사한 이곳 춘천에 있는 강원대 철학과에 자리를 잡았다. G. Frege와 L. Wittgenstein에 있어서 <언어놀이> 문제를 생각 하면서 문학과 종교의 세계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해보려 한다. 하지만 별로 해 놓은 일도 없이 어느덧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들이 나의 삶을 만들어 왔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나는 참으로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 만남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온 김기순 교수님과의 선후배 만남은 실질적으로 나와 송실대와의 맥을 이어 주었다. 퇴직 후에도 자연풍경이 좋은 이곳 춘천에 남아 그동안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해 보려고 한다. (56회·강원대학교 교수)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

다시 쓰는 『대학별곡』

— 소설가 김 필 신 동문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경력: 김범수(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과정)

박유리(학부 4학년)

아마도 중학교 다닐 때쯤, 대학별곡을 처음 읽었다. 중학생이 느끼는 대학에 대한 동경은 지금 생각해도 낭만 그 자체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대학 별곡이라는 소설 때문이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젊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일탈행위. 대학 별곡에 그려진 내용은 지성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오늘은 그분을 만나기로 했다. 송실 철학의 모습을 그린 소설가 김신. 김신 선생님을 뵙기로 한 곳은 도심 속의 공원이었다. 김신 선생님을 만나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한동안 소설을 집필 중이셨기 때문에 만나뵙기가 힘들었다. 개인적으로도 꼭 한 번 뵙고 싶었다. 인터뷰 약속을 잡고 한동안 『대학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동문들과 나누었다. 아마도 동문들에게도 『대학별곡』은 우리의 상징처럼 간주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신 선생님의 첫인상은 젊음이었다. 벌써 중년을 넘긴 얼굴에서 젊음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손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습도 정신도 젊은 분이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학별곡』과 『미스 쪽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소설을 발간하면서

- 최근에 소설을 내셨는데, 분위기는 어떻게니까?

- 어휴. 소설을 내고 나서 곧바로 월드 컵이 시작됐잖아.

- 분위기가 차분하다는 얘기시네요. 하하. 그런데 김윤하일을 실제 인물인가요?

- 아니야. 완전히 가공한 인물이야. 요즘 젊은 여성의 모습을 파격적으로 그려 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결혼에 대한 것이나 애정에 대한 것은 파격적이지. 그런데 『미스 쪽빵』을 읽어 보았어?

- 네.

- 그럼 먼저 소감을 들어보
야 하겠네.

- 책 표지를 보면 아할 것 같
았는데 별로 아하지도 않던데
요. 그리고 기억을 다운로드
한다는 얘기는 흥미 있었어요.

- 거참. 무척 야하게 쓰려
고 했는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요. 그냥 건전했어요.



김 신

-혹시 「우주인의 메시지」라는 책은 읽어
보았어?

-아뇨.

-내가 그 책을 85년도쯤?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되었어. 그때 제목은 「우주인을
맞이하자」였고, 2부는 「나는 우주인의
혹성에 다녀왔다」였어. 음... 상당히 도
발적인 제목이었지. 어쨌든 샀다가, 어
상당히 재미 있더라구. 그 내용은 불란
서 사람이 우연히 차를 몰고 화산지대를
간 거야. 아 그런데 거기서 우주선과 우
주인을 발견한 거야. 처음에는 어린이
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 무척 나이
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지. 그런데 그 우
주인이 “당신은 오늘 여기에 왜 왔느냐?”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
게 대답하지. “그냥 우연히 여기로 오게
된 것이다.”라고. 우주인이 그러는 거
야. 내가 당신을 여기로 불렀다고. 텔레
파시로. 그리고는 며칠 전에 당신이 성
경을 사지 않았느냐고 묻지. 그것도 우
주인의 텔레파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라고 설명해줘. 우주인은 그 사람에게
내일부터 여기로 오라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해주지. 그때부터 성경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해. 그 내용이 아주 황당해.
이렇게하면 예수의 탄생. 동정
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일.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우주인이 마리아를 우주선으
로 데리고 와서 인공수정을
한 거야. 말하자면 우주인의
씨야. 그리고 2부에서 밝혀
지는 것인데, 그 씨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때. 재밌지?

-하하. 무척 재밌네요.

-이 얘기 말이야, 이번에 낸 소설 『미스
쪽빵』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야. 인간
복제나 기억을 다운로드한다는 얘기 말
이야.

-선생님 그런데 제목을 하필 『미스 쪽빵』으
로 했죠? 마치 군인들이 속어로 사용하는 듯
한 용어 '쪽빵'이...

-젊은 여성이 소설 독자층으로 가장 많
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젊은 여성 얘기를 하고 싶는데 좋은 제
목 없냐고 출판사에 물었지.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미스 쪽빵'으로 하자고 하더
군. 그래서 제목이 『미스 쪽빵』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소설이 잘 안 팔리고,
이거 제목에서 죽 썩 것 아니냐고 했지.

오랜 시간동안 미스 쪽빵과 나엘리안과
관련된 얘기를 주고 받았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얘기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
었고, 단지 열린 자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 논의를 마무리 지었
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과거로.

-요즘도 술 많이 드시나요?

-예전처럼은 못 마시지. 요즘에는 한 병 먹으면 딱 좋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다음날 괴롭거든. 내가 술을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는 거야. 그럼에도 대학시절에는 고범서 선생님께서 “주란(酒亂)에 빠져라.”라고 말씀하셨지. 하하. 이제는 마누라가 술 먹으면 잔소리를 많이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

-학교 얘기해주세요.

-우리 집이 기독교야. 원래 고등학교 때 ‘나 대학 안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송실대 원서를 사오셨더라구. 가만 보니까 송실대학교는 기숙사가 있었거든.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안됐지. 그래서 대학에 가기로 마음 먹었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게 나를 유인한 것이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 내가 송실대를 가겠는데, 대신에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학창 시절 기억 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손순모(?)라는 여학생이 있었어. 혹시 아나?

-아니오.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든 학생이었어. 자유주의자였지. 작고 통통한데, 짧은 스커트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땀다하면 향수부터 해서 골치 아팠지. 그런데 자살했어. 자살. 그건 철학적 자살이었지.

-『대학별곡』에서도 방황 때문에 자살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그렇지. 박찬기. 실제 인물이야. 박찬기.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대학별곡』을 쓰게됐지. 군대 갔다가 내가 제대

를 했어. 대학 다닐 때는 글 쓴다고 짹 죽었지. 그 친구는 나보다는 1년 위였어. 전라남도 여수 출신이었고, 철학과 탐으로 들어온 학생이었어. 좌우지간 그 당시 종로 서적에 있는 원서를 무척 많이 읽었지. 그러던 그 친구가 하루는 내 글을 읽고는 “니 글은 아직 안됐어.”라고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나를 무척 자극시켰지. 군대에서도 서로 편지 왕래를 했는데, 하루는 “니 글이 아주 놀랍게 변했다. 심금을 울린다. 보고 싶다.”라고 써주더군. 그렇게 편지 왕래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겨울에 편지가 날아온 거야. 편지에는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쓰여있는 것이야. 아! 이거. 70년대에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빨리 연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 마음은 답답하지. 이번엔 진짜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 이미 그전에 자살 미수가 한 번 있었거든. 유일하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전보밖에 없었어. 우체국으로 달려갔지. “찬기야 살아라. 예수.” 이렇게 썼지. 찬기야 살아라. 예수. 이 말을 보고 우체국 직원이 무슨 내용이나고 묻더군.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암호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설명했다. 친구가 죽는다고. 혹시 예수가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예수’라고 썼다고. 그런데 죽었어. 음... 서울에서 사망 소식을 듣고서 친구 하숙방에 모였지. 우리끼리 조출한 영결식을 했지.

-그 얘기하면 지금도 슬프시지는 않나요?

-음... 이제는 삭었지. 세월도 지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기에 다소 박찬고, 선배님은 선배님 나름

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침묵 뒤 선배님께서 다시 말씀을 꺼내셨다.)

-“철학 따위 소용 없는 짓 하지 말고, 나는 외무고시 준비할 터이니 너희들도 각자 잘 먹고 살 길 찾을 것.” 그 친구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구절도 있었지. 얼마나 진솔하나. 화끈하고, 그 친구가 무척 반항아였어. 아웃 사이더였고, 교수들한테도 빈정거리길 잘하고.

-그분은 아주 비상한 분이셨던 것 같네요. 천재라고 해야 하나?

-어. 그 친구는 천재라기 보다는 귀재라고 해야겠지. 귀신 귀자를 써서, 철학에 귀재가 많았어.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구.

-그런 비슷한 얘기는 지금 본교에서 출강하시는 선배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도. 대다수 선배님들이 『대학별곡』에서 느끼지는 그런 괴이함을 말씀하시거든요.

- 하하. 철학과를 그 땐 ‘무적 철학과’라고 했지. 그것은 『대학별곡』에 등장하는 주장 강태보 형 때문이고, 태보 형은 그렇게 구라가 셀 수 없었어. 내가 재밌다고 하는 얘기는 재미없고, 같은 얘기인데도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면 무척 재밌지. 아주 타고난 이야기꾼이야. 그런데 이 형이 학점으로 전체 톱을 했어. 형은 독학으로 불어, 독어까지 공부했어. 물론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사르뜨르를 독파하겠다고 독학으로 불어를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상당한 실력이었지. 아주 독특한 인물이야. 월남전에 참전까지 했지. 덩치도 엄청 났지. 태보 형이 상도 동을 지키고 있으니까 동네 강패도 형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하하. 그 덕분에

김신도 어깨에 힘주고 말이야.

-『대학별곡』에 등장하는 분들 얘기해주시죠.

- 내가 강태보 형 이야기를 97년도에 『주장』이라는 소설로 했었지. 재출간해야지.

-그분이 아마 군산에 계시죠? 같이 한 번 가시죠. 검사검사해서.

-그래. 그러자.

선배님께서 한참동안 강태보 선배님과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최병현 선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대학별곡』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

#불교와의 관계

- 어떻게 동국대로 가게 되셨나요?

- 군대 잤다와서 졸업을 하려고 했지. 졸업하고 동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불교를 공부하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그만 군대가기 전에 제대로 학사 처리를 하지 않고 간 거야. 하기가 맨날 술독에 빠져있었으니...그땐 복직 제도도 없었으니 말이야. 그 당시 조요한 선생님께서 학장이셨는데도 힘을 못 쓰시더라구.

-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편법은 더 용서할 수 없었겠죠...

- 불교는 김래균 선생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지. 김래균 선생이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학구파였지. 술도 잘 못 먹고, 가끔 친구들이 술 먹이면 해롱거리고 재미있었지. 그때 그 친구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었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 구지선사라는 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 절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지에게 답을 구하는 거야. 가령 “부처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지는 모든 대답을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모든 질문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는 거야. 동자 녀석이 스승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우습거든. 그래서 속으로 ‘저런 것은 나도 하겠다’한 거야. 그런데 하루는 스승이 자리를 비운 거야. 마침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지스님을 찾는 거지. 아 그랬더니 동자가 주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답을 구하거든 자기한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그때 동자가 스승의 흉내를 내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는 거야. 저녁 무렵이 되어서 스승이 오자 동자가 자랑을 하는 거야.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스승이 “그럼 나에게도 답을 다오”라고 했지. 그리고는 스승이 자리 자리를 내주고 질문을 한 거야. “부처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질문을 하자 동자는 또다시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지.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의 엄지손가락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 제자는 손가락이 잘린 순간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 이 얘기는 김래균 선생한테 들은 거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읽기 시작했지. 개인적으로는 서양철학사 한 권보다는 그 얘기가 내 뇌리를 치더라구. 불교에서 말하는 공안(公案), 그러니까 화두(話頭). 대표적인 책이 벽암록, 임제록. 이런 책은 읽어볼만 하지.

소설가로서

- 소설가로서 대중과 자기 세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세요?

-음... 소설가가 대중과 타협한다는 것은 곧 돈을 쫓는 거야. 대중과 타협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런데 만일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지조를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대중은 궁금해할걸? 억지 같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케이스는 박상룡이라는 작가가 있지. 『철조어록』, 『죽음에 대한 한 연구』. 아주 심했어. 그런 점에서 나는 세미-클래식리스트 라고 말하고 싶어. 작가가 되고자 하고 작가가 된 다음에도 내가 견지하려는 자리가 그것이지. 대중도 버릴 것이 아니고, 문학적 감수성도 버릴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물론 순전히 내 감각에 의지하고 있지. 물론 그 얘기를 부정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고, 긍정해주는 독자도 있을 것이야. 반체제 운동, 민주화 운동의 전위에서 있지 않고, 나는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봤거든.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변했지. 그렇게 되니까 벌써 오십이 넘었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있어. 민주당 정권이 창출되니까 권력에 기생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었지.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송실대에서 배운 것은 바로 옳고, 그름이야. 가난의 자유. 내 목표는 자유야.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창조냐 진화냐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 죽어도 좋다. 이거야.

-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하.

-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우라. 그렇게 말하지 라우라는 장애야 장애. 내가 가는 길에 장애이구나 한 거야.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에 미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드라마. 이것은 우주적 드라마야. 완벽한 드라마. 예수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무릎 꿇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거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냐. 완벽한 소설이지. 그래서 나는 직업을 잘 선택했어.

- 소설을 쓰실 때 영감을 어떻게 얻으세요?

- 그냥 오지. 그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그것은 내 비행에서 오는 거야. 꽃밭에 벌이 오고 나비가 오듯이 그냥 오는 거야.

- 지금 계획하고 계신 글이 있으신가요?

- 물론 평생 걸려서 써야할 목록이 있지. 개인적인 바램은 문학사에 획을 긋는 소설을 한 편 쓰는 거야.

- 소설은 언제부터 쓰려고 하셨나요?

- 작가가 되려는 꿈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였던 것 같애. 중학교 때부터 가졌지. 내가 송실대 철학과에 와서 철학 공부를 한 것도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면 이 얘기부터 하려고 했었어. 집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 사춘기 때 나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이 무엇이나 하면,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였어. 결국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지..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아직까지도 나의 지적

원동력이야. 혹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까하고 기독교도 기웃거리려고, 불교도 기웃거리고...

- 글쓰시면서 힘들 때 전업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 그건 없었어.

- 한번도 없으셨나요?

- 가끔 힘들 때, 마누라하고 다 때려치우고 사과 장수나 할까 하고 농담을 하기는 했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에 미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드라마. 이것은 우주적 드라마야. 완벽한 드라마. 예수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무릎 꿇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냐. 완벽한 소설이지. 그래서 나는 직업을 잘 선택했어.

#마치며

간단한 인터뷰 뒤에 진한 뒤풀이가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아마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고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만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열망이 선배님께게도, 우리에게도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다 못다한 말은 늦가을에 군산에 내려가서 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아마도 다음 번에는 과거부터 전승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배님이 내신 소설이 많이 팔리고(?) 문학사에서 각광 받는 작품을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정리했다.

동 문 회

1. 동문 소식

▶ **박해용** 동문 (49회) 울산대 인문학 연구소 소속으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분석"라는 연구 주제로 3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 **박상선** 동문 (50회) · **김인석** 동문 (52회) · **신응철** 동문 (64회) 숭실대 인문과 학연구소 소속으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칸트와 문화 철학"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 **김승국** 동문 (52회) · **박금희** 동문 (57회)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소속으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아태 분쟁 지역의 문화 · 종교적 갈등과 평화 교육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2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 **박삼열** 동문 (60회) 『철학연구』지 (가을호 · 58집)에 "스피노자의 속성 개념에 대한 객관적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 **오지석** 동문 (61회 · 목사) 9월부터 본교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되었다.

▶ **박도현** 동문 (대학원) 9월부터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되었다.

▶ **정재식** 동문 (대학원) 지난 3월 7일 전남 순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순천 성북 교회에서 부목사로 노역하고 있다.

철 학 과

▶ 2002년 8월 19일 거행된 학위 수여식에서 철학과에서는 8월 19일 학위 수여식을 통해서 한 명의 박사, 두 명의 석사, 6명의 학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심의용** 씨 (62회)가 "程頤 『易傳』에 나타난 士大夫의 義理"로 박사학위를 수여했고, **윤동성** 씨 (72회)가 "자유주의론과 결정론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로, **백두환** 씨 (72회)가 "정신에 대한 물리주의적 설명의 한계"로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학사 졸업자는 주양명, 김순태, 이승환, 박유민, 박희진, 조유진이다.

▶ 철학과로 2002학년도 제 2학기에 김광영 씨 (학사)와 정재돈, 이수진 씨 (이상 일반)가 편입시험을 통해 새로 들어오게 되었다.

▶ 철학과 대학원으로 2002학년도 제2학기에 **어양우**, **오지석** (64회), **박도현** (대학원) 씨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 철학과 대학원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에 치악 코레스코에서 대학원 MT를 실시하였다. 본교 교수, 강사, 대학원생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대학원 학술 발표회도 함께 가졌다. **구태환** 씨 (65회 · 박사과정 수료)가 "마테오 리치의 유교관"으로 논문 발표를, **김시천** 씨 (66회 · 박사과정 수료)가 논평을 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 **목창균** 동문 (44회 · 서울신대교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903동 301호

▶ **김광휘** 동문 (47회 · 영락여상교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 아파트 201동 109호 (02) 2634-0584

▶ **김상복** 동문 (53회 · 양명교 교사) [직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 교 육정보실 016-9331-9591.

▶ **김인석** 동문 (52회) 서울시 종로구 승인2동 298-9 대화빌딩 5층 2231-4970

▶ **윤동성** 동문 (72회)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60-79 201호

▶ **최태연** 동문 (대학원 · 천안대교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SK 아파트 111동 307호

기 타

1.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 직장이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 회 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 체 국 012948-0048513
[예금주] 승철동문

계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6호 (2002 가을)
2002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김 범 수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